

안영근·김민철 전남대병원 교수팀, 연구성과 ‘우수’

다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중재 시술 패턴 밝혀 세계 최고 의학 학술지 란셋 게재...한국 의료 위상 높여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순환기내과 안영근·김민철 교수팀의 임상연구 논문이 세계 최고 권위의 의학 학술지인 영국 ‘란셋(The Lancet)’에 게재됐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안영근 교수는 지난 2021년 전남대병원 의료진 중 처음으로 ‘란셋’에 논문이 발표된 이후 4년 만에 또다시 게재되는 기록을 세웠다.

이번 논문은 ‘다혈관 질환을 가진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관상동맥 중재술(제1저자 김민철 교수, 교신저자 안영근 교수)’에

대한 연구다.

“다혈관 중재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그룹(원인 혈관과 비(非) 원인 혈관을 동시에 시술하는)과 ‘입원기간 동안 단계적 중재술(원인 혈관을 먼저 시술을 하고 입원기간 동안 비원인 혈관을 시술하는)을 시행하는 그룹’으로 나눠 비교 임상 시험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다혈관 중재술은 심부전이 없는 안정적인 환자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권장된다는 결론을 도



안영근 김민철

출했다.

이는 향후 해당 환자군에 대한 중재 시술 패턴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돼 치료 가이드라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논문은 지난 2019~2025년 전국 14개 주요 심혈관센터에 연구 등록된 ST분절 상승 급성 심근

경색증 환자 994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였다.

안영근 교수는 “이번 연구로 사망률이 높은 다혈관 질환을 가진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게 적합한 중재 시술 패턴을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치료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환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823년 창간된 란셋은 미국의 ‘NEJM(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과 함께 세계 최고의 의학 학술지로 꼽힌다. 학술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피인용지수(IF)가 88.5(2025년 기준)에 달하는 권위 있는 학술지로, 국내에서 논문이 게재된 사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PEOPLE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췌세는, 함평군에 나눔 실천 재난구호성금 500만원 기탁

췌세는 췌세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돕기 위해 함평군에 성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1일 밝혔다.

췌세는 지능형 영상분석 및 통합관계 솔루션 전문기업으로, CCTV 통합관계, 차량번호 인식, 불법주정차 단속, 재난 관계 플랫폼 등 다양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개발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에 공급하며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성금은 호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긴급 생계지원 등에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광주시의회, SRF 시설 현장 점검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광주 SRF(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 약취 민원과 관련, 1일 현장을 방문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환경복지위원회를 비롯해 광주시 기후환경국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SRF 시설뿐만 아니라 광역위생매립장도 함께 점검했다. 광역위생매립장은 집중호우 시 침수 문제 등이 드러나 향후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민원해결의 시급성과 현장 대응의 한계를 직접 확인하고, 강도 높은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남도의 맛, 세계로’ 미식박람회 홍보 열기 후끈

사무국, 광주·전남 도심 현장홍보...개막 앞두고 참여 분위기 확산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이 박람회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홍보 활동을 나섰다.

사무국은 지난달 30일과 1일 광주와 전남에서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취지와 주요 콘텐츠를 알렸다.

지난 30일 남양 롯데아울렛 행사장은 주말을 맞아 방문한 가족 단위 관람객과 소풍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서는 입장권 사전 예매와 할인 혜택 안내, 박람회 대표 프로그램을 담은 홍보자료 배포가 진행됐으며, 공식 SNS 구독 인증 이벤트로 기념품을 증정해 호응을 얻었다.

1일에는 광주시청 로비와 시민광장에서 시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가 이어졌다. 특히 전남관광플랫폼(JN TOUR)과 연계해 남도 미식 콘텐츠와 함께 전남 전역에서 즐길 수 있는 관광·체험 프로그램도 소개하며 관심을 모았다.

홍양현 박람회 사무국장은 “광주·전남 시민들에게 박람회의 취지와 남도의 미식 가치를 직접 전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적극적 홍보로 성공 개최 분위기를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는 오는 10월 1일 목포 일원에서 개막한다. 전통 식문화를 넘어 푸드테크, 식품산업, 글로벌 요리 콘텐츠까지 아우르는 종합 미식 박람회로 꾸며질 예정이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사무국이 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최근 남양 롯데아울렛 행사장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취지와 주요 콘텐츠를 알리는 행사를 가졌다.

전남도는 이번 박람회를 비롯해 잇따라 대형 문화·산업 행사를 준비 중이다. 지난 8월 30일 개막한 2025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문명의 이웃들’을 주제로 20개국 83명의 작가가 참여한 10월 31일까지 목포·진도·해남 일원 6개 전시관에서 전통 수목과 현대미술의 경계를 넘는 작품을 선보

인다. 2025 국제농업박람회는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 -AI와 함께하는 농업혁신. 생명 키우는 K-농업’을 주제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전남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되며, 혁신적 전시와 체험의 장으로 국내외 관계자의 이목을 끌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정상기업(주), 전남 사랑의열매에 1억 기부

사회공헌 협약...목포 돌봄이웃 복지사업비 활용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일 정상기업(주)이 사회공헌 협약을 통해 목포지역 돌봄이웃 복지사업비 1억원을 기부한다고 밝혔다.



전남 사랑의열매는 정상기업(주)의 약정기부금(분기별 2500만 원·총 4회)을 목포지역 돌봄이웃에 필요한 취약계층 지원비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정오 정상기업(주) 대표는 지난해 1월 광주 아너소사이어티 188호 회원에 가입했으며, 기업 차원에서는 2023년 11월에 광주 6호 나눔명문기업에 등록하는 등 꾸준한 나눔에 나서고 있다.

이정오 대표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지역에 환원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기부가 소외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국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소중한 후원금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광양 톨게이트와 여수신안 일대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화물차 불법 단속

광양 톨게이트·여수신안 일대...47대 148건 적발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는 최근 광양 톨게이트와 여수신안 일대에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공단이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국민참여형 연합단속 프로그램’으로 추진됐다. 단속에는 공단 자동차안전단속원 남부권 연합팀을 비롯해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천국토관리사무소, 여수경찰서, 여수시청,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등 8개 기관, 60여명이 참여했다. 또 사랑실은교통봉사대, 광양·여수지대 등 국민 참여단도 함께했다.

단속반은 총 143대를 점검해 47대에서 14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후부안전판, 후부반사지시태 불량(안전기준 위반) △적재함보조지대 임의 설치(불법투닝) △적재물 결속 불량, 덮개 미설치, 적재량 초과(적재불량) 등이었다.

이런 위반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현장에서 즉각적인 행정 조치가 이뤄졌다.

김행섭 광주전남본부장은 “최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지만, 화물차 사고 사망자 비율은 여전히 30% 안팎으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함께할읍센터. 문의 062-374-2818.

△아동일시보호 상담=미혼부모아동·결혼가정아동·경제적 사정·아동 학대 등 양육환경에 어려움 있는 3세 미만의 아동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소 상담. 광주영아일시보호소. 문의 062-222-1095-1096.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문의 061-320-7024.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모집

△신장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성악 또는 찬불가 배우기에 관심있는 일반인.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장동 대광로제비앙파트 후문 80m. 문의 010-4622-7838.

△광주 북구 여성인력개발센터 글쓰기교실=글쓰기 기초를 통해 심리치료를 하는 동시에 자신을 만나는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문의 062-266-8500.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시·군·구 지부모집. 한국차매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문의 010-5522-9700.

은세 (음력 7월 11일)

- 48년생 산사에서 마음을 정리하자
- 60년생 재물을 잃어버려 부부싸움이 있다
- 72년생 금전 욕심을 부리면 배탈이 난다
- 84년생 고독 마음이 안정 안 된다
- 96년생 이성간에 불신이 예상된다
- 51년생 막연한 추정은 화근이 된다
- 63년생 숲 속에 있는 보석을 찾는다
- 75년생 사랑이 싹트니 소중한 만남
- 87년생 융통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다
- 99년생 서로 화합 얻는 기회
- 54년생 친구를 위해 이보 전진
- 66년생 상사와 함께 급히 먹는 밥 체한다
- 78년생 자각취득에 현혹될 우려가 있다
- 90년생 바른 말 하다가 좋은 소리 못들어요
- 57년생 외과적 수술 운이 없다
- 69년생 부두산은 의욕만으론 어렵다
- 81년생 없었던 것이니 짐작할 필요 없다
- 93년생 문서를 놓치는 것이 좋아지는 날

- 49년생 즐거운 일이 겹칠 수 있다
- 61년생 재물을 욕심을 부리지 말라
- 73년생 친구가 금전 용돈을 부탁한다
- 85년생 후배들로 부터 칭송을 듣는 날
- 97년생 현명하게 선택한다면 고민하라
- 52년생 재물 욕심은 후일에 시간 남비
- 64년생 인내하면 백날이 편하다
- 76년생 행동과 말을 일치하라
- 88년생 처음 시작은 어렵다
- 55년생 직장에서 참고사는 것이 좋다
- 70년생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 79년생 지인에게 금전 용돈을 받는다
- 91년생 마음에 들더라도 미래 생각
- 58년생 직장 동료들 중 중용해 주는 것이 좋다
- 70년생 자녀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 82년생 충동 구매하면 후회
- 94년생 친구들과 시끄러운 날



강은주 교수의 시주·풍수·직명

- 50년생 당당한 문제부터 해결하라
- 62년생 욕심을 부리면 부스럼을 만드는 날
- 74년생 문서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 86년생 문서로 인하여 곤욕을 당할 수 있다
- 98년생 단점이 보인다면 현장에서 처리하라
- 53년생 부부사이 깨가 쏟아지는 즐거운 날
- 65년생 형제 도움은 피하라
- 77년생 문서상 문제로 조언을 들어라
- 89년생 서로의 진실된 사랑 확인하라
- 56년생 어려운 일에 있어 결정을 내릴 때
- 68년생 끈기 없는 인연은 없다
- 80년생 용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다
- 92년생 진보하지 않는다면 좌천된다
- 59년생 직원들 말을 주의하라
- 71년생 의사 표시는 성급하게 하지 말라
- 83년생 충동 양상을 띠고 있다
- 95년생 친구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진다